

웹진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웹진 | 2014. 11 Vol. 1

커버스토리

2014 대학배구리그 MVP

인하대 **황승빈**

스포츠라이트

'생존을 위한 슬래잡기'
카바디 국가대표팀

대학리그 소식

축구 다시 보는 U리그 후반기

농구 대학농구, 프로무대로 가다

배구 프로배구 신인 남자드래프트 파헤치기



10월 10일부터 11일 2일 간 치러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정기전 마지막 경기는 '축구'였다.

이날 고려대학교 응원단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2-0으로 고려대가 승리했다.

이로써 고려대는 5종목(야구 · 농구 · 아이스하키 · 레비 · 축구)을 이겨 5전 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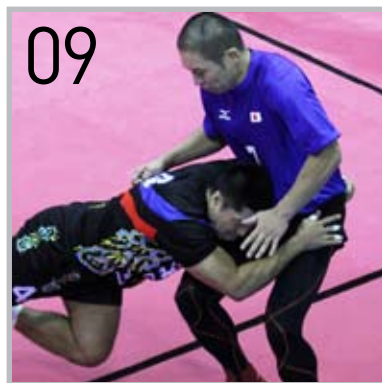
대기록을 세웠다.

Contents



커버스토리

2014 대학배구리그 MVP
인하대학교 황승빈



스포츠라이트

부처도 했던 스포츠,
격투형 술래잡기
카바디 국가대표팀



Photo Time

2014 정기 연고전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대학리그 소식

대학농구, 이제 프로를 향해 가다 14

2014-2015 프로배구 신인드래프트 남자부 1라운드 파헤치기 15

2014 카페베네 U리그 후반기 결산 16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학 선수 총결산 17

전문가 칼럼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의 의미, 향후 개선점과 지향점 18

페이스메이커

승마, 가을을 달리다 20

동아리 U리그

우리도 된다!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22

視視各各

서포터즈가 바라본 대학스포츠 23

멘토를 만나다

대한체육회 훈련지원부 김형석 영상분석가 25

그때 그 시절

‘별 중의 별’ 성균관대 배구부 김상우 감독의 ‘그땐 그랬지’ 27

KUSF NEWS

29

취재 후일담

30

2014
대학배구리그
MVP
인하대학교

황승빈



대학배구리그에서 2014년은 ‘인하대학교의 해’라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하대의 활약이 눈부셨다. 춘계대회 우승에 이어 대학배구리그 챔피언 결정전까지 완벽히 정복하며 대학배구의 정상을 밟았다. 시즌 시작 전부터 강력한 전력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인하대학교, 그 중심에는 인하대의 잠재력을 하나로 뭉쳐낸 세터 황승빈이 있었다.

‘2014’ 인하대학교의 화려한 부활

“솔직히 저는 우리 팀 전력이라면 세터가 제가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우승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잘해서 우승한 게 아니고 다른 선수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잘 때릴 수 있는 공만 올려줬다면 2014년의 인하대는 무조건 우승했을 거예요.” 그는 올해의 인하대학교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지만 우승컵을 손에 쥐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춘계대회 예선전 첫 경기에서 졌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모두가 ‘인하대의 전력이 좋으니 당연히 우승할거다’라고 평가하니 팀 전부 다 자만하고 시합에 들어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고 나서도 많이 혼났죠. 하지만 그 시합을 계기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우승하는 그 순간까지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시합을 뛰었어요. 대회 우승을 확정짓



고 (박)원빈이랑 같이 펄펄 울었죠. 정말 힘든 대회이기도 했고 제 배구 인생에서 공식대회 첫 우승이었거든요.”

춘계대회 우승에 이어 인하대학교는 대학배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다시 한 번 정상에 자리를 노렸다. 하지만 이번 도전 역시 만만치 않았다. 홍익대의 선전으로 힘겨운 풀세트 승부를 펼친 것.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우승을 예감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챔피언 결정전은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원래 하던 대로 애들이 좋아하는 공, 잘 때리는 공을 올려주면서 편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생각을 조금씩 바꾸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보다는 ‘공격수들을 믿고 맡기자’고.”

연달아 두 번의 우승을 거머쥐며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인하대학교. 하지만 이에 조금은 지친 탓이었을까 추계대회에서는 그들의 장점을 살려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결승전에서 만난 홍익대학교에 무력하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다. “시합에서 지고 나서 그렇게 분한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저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났죠. 다른 쟁쟁한 팀들 모두 다 이기고 올라온 결승전 이었는데 ‘고작 이렇게 밖에 못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화나고 분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즌 목표로 ‘전관왕’을 내걸었던 인하대학교로서는 아쉽게 그치 없는 상황이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인하대학교는 지난해 우승의 문턱에서 경기대학교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며 수차례 좌절을 경험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경기대학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설움을 완벽히 되갚아 준 것. “이번 시즌 경기대와의 시합이 제일 쉽고 편했어요. 일단은 경기대 주축 멤버들이 빠져나간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경기대의 패턴 플레이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원빈이와 제가 시합 전에 항상 비디오를 보면서 ‘이 팀은 이런 게 약점인 것 같다. 이런 걸 막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 해줬죠.”

반면 의외의 복병 역시 존재했다. 그 누구도 이만큼의 활약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 유난히 인하대와 질긴 인연을 보인 홍익대학교다.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팀은 홍익대예요. 홍익대는 화려하지 않지만 미스가 없고 조직력, 수비가 좋아요. 세터도 토스웍이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점수 따기가 힘든 팀이었어요. 특히 홍대는 센터 블로킹이 잘 따라다녀서 그 친구들을 속여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익대랑 할 때는 애들이 잘 때리게만 올려주자 생각하고 운영했죠. 우리 것에 더욱 충실했어요.”



탄탄한 실력으로 인하대를 압박한 홍익대에서 특히 황승빈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 선수는 센터 백준선이다. 평소 상대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황승빈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의 등장은 그를 더욱 더 자극했다. “백준선 선수는 블로킹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리딩 블로킹을 할 때도 있고 맨투맨을 뜰 때도 있어서 그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속공수를 확실히 멀리 두거나 가까이 뒤편에서 상대 블로커 위치를 확인하고 그 반대쪽으로 공을 주는 식으로 운영했죠.”

‘세터 황승빈’을 있게 한 인하대학교

황승빈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MVP의 영예를 안은 지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얼떨떨한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승빈은 본인을 향한 관심에 익숙지 않다. 초중고 시절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는 인하대학교에 와서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짝임을 단번에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학년 때는 대학까지 온 것에 대해 그냥 만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1부 대학에 갈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와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별다른 발전이 없었죠.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더라고요. 밖에서 경기들을 보면서 ‘내가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배구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한 그는 인하대학교 내에서도 개인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로 정평이 났다. 행여 감각을 잃을까 시합 전후를 불문하고 홀로 체육관을 찾았다. 그가 주전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다. “막상 3학년이 되니까 주전 세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양)준식이 형이 있을 때만큼은 해야 할 텐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4학년 때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내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4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손에 얻은 우승의 여운은 그의 가슴 속 깊이 박혔다. 그리고 그 첫 순간에는 스승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다.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확정지은 순간 황승빈과 박원빈은 가장 먼저 최천식 감독에게 달려갔다. “감독님에게 달려가서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꼭 안았어요. 감독님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때 약간 울컥했죠. 4년 동안 감독님이란 그런 스킨십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러한 최천식 감독의 무심한 듯 남모르게 물어나는 애정과 가르침은 ‘인하대학교 세터 황승빈’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물론 대학생활에 아쉬운 점은 있다. 바로 전관왕이다. 하지만 그는 인하 대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목표했던 전관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 4년의 대학생활에 만족해요. 4년 동안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좋은 환경, 좋은 스승님 밑에서 배우고 있고, 그냥 모든 것들이 좋았죠.” 지금의 그가 있는 데에는 ‘인하대학교’의 영향이 매우 컸다. 인하대학교에서의 성장통이 없었다면 세터 황승빈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인하대학교 역시 황승빈이 없었다면 2014년의 부활이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실력은 기본, 겸손은 미덕

뒤늦게 사람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각인 시킬 수 있게 되었던 황승빈. 그리고 그 순간까지의 긴 시간동안 그의 곁에는 묵묵히 그를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어머니가 있었다. “지금까지 배구를 하는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제게 칭찬을 잘 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항상 시합할 때마다 ‘오늘은 어땠다. 이런 점에 더 신경 써야겠더라. 애들이랑 호흡이 잘 안 맞더라.’라며 조언을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시는 건 겸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고.” 황승빈 역시 본인에 대한 칭찬에는 매우 인색하다. 언제나 본인의 잘한 점보다는 부족한 점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와 함께 세터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 또한 인상적이다. “최천식 선생님께서 항상 세터는 ‘화려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눈에 띄기 보다는 묵묵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1라운드 5순위로 대한항공 점보스에 입단하게 된 황승빈은 대학생 신분으로 뛰는 마지막 시합, 전국체전을 앞두고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 대회 하나만 남았는데 지난 추계대회에서의 시합은 다 잊고 다시 올해 첫 시합에 임하는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대학무대를 넘어 이제는 프로선수로 거듭난 세터 황승빈, 겸손과 성실함을 가장 큰 무기로 가진 그가 더욱 큰 무대에서 거침없는 성장을 이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글 · 사진 / 서다영 (대학스포츠허로그 대학생 기자단)





2014
대학배구리그
MVP
인하대학교

황승빈

부처도 했던 스포츠, 격투형 술래잡기 카바디 국가대표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예선 첫 경기가 한일전이라 관중도 많고, 중계도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한 종목인 카바디.

카바디는 인도의 전통 스포츠로 한 명의 공격자가 7명의 수비자를 상대하는, 양쪽 다 굉장히 투지 넘치는 장면을 많이 연출하는 종목이다. 카바디의 기원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왕자가 7명의 적에게 둘러싸여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다는 고대 인도 서사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펀자브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부처도 카바디를 즐겼다고 말할 정도로 인도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며 국민적인 스포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이기 전에 '비인지(非認知)'에 가까운 이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바디를 통해 우리에게 재미있는 경기와 함께 메달 획득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카바디 국가대표팀을 만나러 인천 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날, 부산의 동아대학교로

향했다.

부활의 기회가 되준 카바디

카바디 선수들을 보며 인상 깊었던 건 그들에게서 진심으로 훈련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운동 자체의 집중력과 몰입도가 높긴 하지만 힘겨운 내색 없이 시종일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부상 달고 살고,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겠습니까? 다 즐거우니깐 하는 겁니다.” 서론을 넘긴 노장 안환기 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정말 설렘이 가득했다. 카바디를 대하는 이러한 자세는 안환기 선수뿐만 아니라 훈련장의 모든 선수들에게도 느껴졌다.



치열한 카바디 경기 장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카바디팀에는 다른 종목에 종사했던 선수들이 꽤 있었다. 태권도 선수 출신, 육상 선수 출신 등 다른 운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그쪽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카바디를 만난 뒤, 그들은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국가대표'로 선수 최고의 명예와 커다란 책임을 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도전을 하게 된 그들에게 카바디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생존을 위한 게임, 카바디

카바디는 아드레날린이 절로 샘솟는, 신속하고 거친 면이 매력적이다. 특히 다른 스포츠들과는 달리 수비자 또한



공격중인 카바디 여자 국가대표팀 주장 조현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이 점은 공격자와 수비자 모두의 플레이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면 안에 숨어있는 카바디의 진정한 매력은 '생존하는 법'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이다.

공격자는 7명의 적이 버티고 있는 좁은 적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철저히 혼자 적진에 뛰어든 상태에서 순간순간 살아남기 위해 신속하고 빠른 판단으로 움직임을 창조해야 한다.

수비자도 마찬가지로 생존하려면 터치를 당해 아웃되지 않는 동시에 공격자를 제압하기 위해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수적 우위를 믿고 욕심을 내다간 어느 순간 한 명의 공격자에게 전멸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용기와 협동, 우리가 현재 처한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카바디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신에게는 아직 12cm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예선 탈락 이후, 그들은 정말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다. 부족한 지원과 무관심 속에서도 그때의 치욕을 곱씹으며, 대한민국 카바디의 영광을 위해 치밀하고 치열하게 훈련했다.



패기 넘치는 카바디 여자 국가대표팀

연했다. 인도인 코치를 영입해 철저히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기를 다지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아예 인도로 전지 훈련을 떠나 쟁쟁한 지역 팀들과 겨루며 훈련하고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 그리고 2013 인천 실내 아시아 무도게임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동메달을 획득해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증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선수들 중에는 대학에서 카바디 팀을 운동부로 인정해 주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지만 단순 동아리 부원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인도 현지에서 선수로 크게 활약하고 있어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카바디가

스포츠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부산 인근 지역이 아닌 인천에서 교육기술회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카바디를 하나의 스포츠 콘텐츠로 특성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동아리들도 조금씩 생기는 등 확산의 조짐이 보여 희망이 되고 있다.

‘아직 신에게는 12cm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카바디 국가대표팀. 이들에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것이다.

글 이태민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카바디 남자 국가대표팀

감동의 순간을 찰칵! 사진으로 살펴보는 대학스포츠 명승부 · 명경기

2014 정기 연고전

매년 열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대회.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등 다섯 종목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10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치러진 이번 2014 정기 연고전은 고려대가 5전 전승으로 승리를 가져갔다.

*이번 대회는 고려대학교가 주최하였기에 '연고전'이 정식 명칭이다. 양 교는 매년 번갈아 가며 대회를 주최하는데, 상대 교에 대한 예우로 주최측의 명칭이 뒤에 온다.



응원전

또 하나의 종목! 2014 연세대학교 · 고려대학교 정기전에서 벌어진 양팀의 치열한 응원전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지난 9월 4일, 광주에서 열린 제 4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서 한양대가 동의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양대 선수들이 김태수의 역전 득점에 환호하고 있다.



동의대 조준영의 추격타에 기뻐는 선수들



한양대의 우승 세리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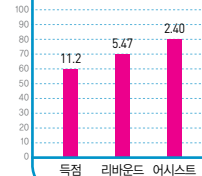
대학농구, 이제 프로를 향해 가다

글 권오준(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두둑 호랑이, 이제는 오리온스의 ★로

고양오리온스 이승현

용산고-고려대
197/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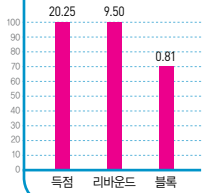


언뜻 보면 특출한 성적이 아니지만 이 기록이 경기당 평균 23분씩만 뛰면서 기록한 걸 감안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강한 힘과 리바운드 능력이야 익히 알려져 있지만 특히 그가 무서운 것은 어시스트와 3점 슛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까지 리그에서 3점 슛 성공이 0%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올 한해 이승현이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는지 알 수 있다.

대학리그 득점왕, 프로를 호령해라

서울삼성 김준일

휘문고-연세대
20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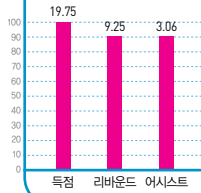


대학 내내 비교되었던 김준일과 이승현이었지만, 4학년 이후 이승현이 다재다능한 포워드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김준일은 힘과 높이를 바탕으로 한 센터의 모습을 보이며 차별을 뒀다. 올 시즌 체중감량에 성공하며 화려한 시즌을 보냈고 힘은 예전과 비슷하지만 확실히 예전과 움직임이 달라질 정도로 빨라졌다. 체격이 좋아 프로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 평가다.

다재다능하지만 이제는 자리 찾을 때

인천전자랜드 정효근

대경정산고-한양대
20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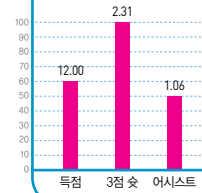


고교시절 장신 가드로 이름을 날렸고 대학에 와서는 포워드의 기술을 익혔다.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자질을 갖췄다. 큰 키를 가지고 있지만 시야가 넓고 다른 선수들을 활용할 줄도 안다. 아직 슈팅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2m가 넘는 신장은 확실히 스몰 포워드로 매력적이고, 상대와의 매치 업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스나이퍼', 상대의 림을 겨누라

전주KCC 김지후

홍대부고-고려대
18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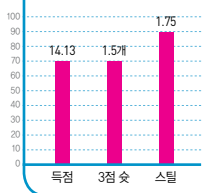


'스나이퍼'라는 별명을 얻은 대학 최고의 슈터다. 경기당 2개가 넘는 3점 슛을 성공시켰고, 성공률도 37%대로 나쁜 편이 아니다. 김민구가 빠진 KCC 입장에서 사실 누구보다 적합한 즉시전력감이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김지후는 김민구의 빈자리를 톡톡히 메우고 있다.

피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

원주동부 허웅

용산고-연세대
18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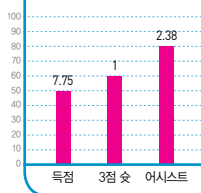


사실 허웅의 3점 슛 성공률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28%). 하지만 허웅의 무서운 점은 큰 경기에 강하고 폭발력이 무섭다는 점이다. 터지기 시작하면 거여고 림을 적중시키고 만다. 그 폭발력을 제대로 보여준 게 최근의 2014 정기 연고전이다. 허웅은 3점 슛 6개를 포함 29득점을 올리며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졌다. 과연 농구 대통령의 아들인, 그 피를 속일 수 없었다.

리틀 김태술, 그 자리 메워야

안양KGC 김기윤

경북고-연세대
18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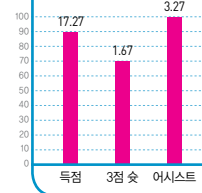


대학시절 김기윤은 기대 받은 만큼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 부상이 계속 발목을 잡았고, 다른 가드와 출전시간을 나눠가지며 뚜렷한 기록을 올리기 힘들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은 1학년 때부터 익히 인정받아온 바이다. 특히 소속팀이 뚜렷한 포인트가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윤이 열려 부상을 털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듀얼가드 장점 충분히 살려야

고양오리온스 이호현

군산고-중앙대
18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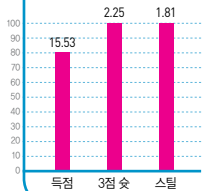


중앙대의 듀얼가드인 이호현은 이번 시즌 KT-오리온스 간 지명권 양도로 인해 오리온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포인트가드, 슈팅가드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슛 성공률을 보완해야 할 점으로 남는다. 4학년이 되어서 그나마 성공률이 좋아진 점은 다행이다.

상명대의 첫 1라운드 배틀

서울SK 이현석

제물포고-상명대
19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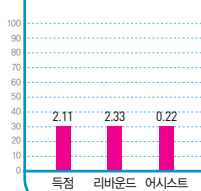


상명대의 에이스, 이현석은 서울SK의 지명을 받았다. 변기훈이 군 입대를 한 SK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평, 아무래도 수비적인 면보다는 공격적인 면이 부각되는 선수고, 팀 내에서도 외곽에서의 한 방을 기대하고 그를 내보낼 것이다.

미완의 대기, 이제는 보여줄 때

창원LG 최승욱

동아고-연세대
18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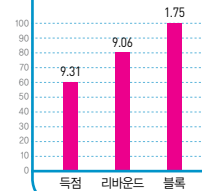


최승욱은 대학 1학년 시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팀 내 전술 상 출전한 기회가 많지 않았다. 또한 올 시즌은 본인의 부상으로 인해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확실히 기록만으로는 물음표가 남는 지명이다. 하지만 챔피언 결정전, 2014 정기 연고전에서 확실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10순위의 기적 일어나나

울산모비스 배수용

계성고-경희대
194/94



배수용이 저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공격적인 부분에 있을 것이다. 올 시즌 야투율 38.2%, 3점 슛 성공률을 24.14%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에서는 리바운드 가담이나 굿윌에 강점을 보였지만 프로에서 똑같은 일을 맡기엔 키가 작다. 하지만 유재학 감독의 조련 하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참치훈을 이을 10라운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2014-2015 프로배구 신인드래프트’ 남자부 1라운드 파헤치기 ‘프.일.소-프로배구 드래프트 일라운드 선수를 소개합니다.’

지난 9월 11일, 청담 리베라 호텔에서 ‘2014-2015 프로배구 신인드래프트’가 실시됐다. 리베라가 1라운드 1순위에 지목되고 얼리드래프트 참가자였던 2, 3학년들이 1라운드에 지목되는 등 많은 화제를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어느덧 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V리그 시즌도 돌아왔다.

1라운드 1순위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

오재성 성균관대 4학년

포지션 : 리베로
키/몸무게 : 175/63
생년월일 : 92.04.02
출신교 : 남성고-성균관대
2014 전국대학배구리그 디그 순위 : 1위(세트당 3,300개)
프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 프로선수가 되었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좌우명 :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화려한 디그 플레이로 코트를 빛낼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전력에는 서재덕, 전광인 등 성균관대 출신이 많아 더욱 합이 잘 맞는 배구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라운드 2순위 안산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박원빈 인하대 4학년

포지션 : 센터
키/몸무게 : 198/90
생년월일 : 92.04.07
출신교 : 옥천고-인하대
2014 전국대학배구리그 블로킹 순위 : 1위(세트당 1,025개)
프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 프로에 와서 운동해보니 대학교와 확실히 벽이 있어서 더 노력해서 경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좌우명 : 어디가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해내자.

OK저축은행의 경우 주전센터였던 김홍정의 군 입대 이후 빈자리가 컸다. 대학리그 블로킹 1위에 빛나는 박원빈이 이 공백을 잘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1라운드 3순위 구미 LG손해보험 그레이터스

노재욱 성균관대 4학년

포지션 : 세터
키/몸무게 : 191/83
생년월일 : 92.07.10
출신교 : 광주전자공고-성균관대
2014 전국대학배구리그 세트 순위 : 4위(세트당 11,523개)
프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 신인답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 드려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좌우명 :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성균관대 주전 세터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열린 ‘현대라이프컵 국제대학배구대회’에서도 대표팀 주전세터와 주장을 맡을 만큼 인정을 받았기에 프로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1라운드 4순위 아산 우리카드 한세

구도현 성균관대 4학년

포지션 : 센터
키/몸무게 : 199/90
생년월일 : 92.06.17
출신교 : 경북사대부고-성균관대
2014 전국대학배구리그 블로킹 순위 : 7위(세트당 0,706개)
프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 열심히는 당연한 거고,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좌우명 :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 상무에 있는 신영석·박상하 센터라인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카드의 선택을 받은 만큼 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라운드 5순위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

황승빈 인하대 4학년

포지션 : 세터
키/몸무게 : 183/78
생년월일 : 92.08.26
출신교 : 문일고-인하대
2014 전국대학배구리그 세트 순위 : 5위(세트당 11,283개)
프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 이제는 아마추어 선수가 아닌 프로선수로서 부끄럽지 않은 기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명 : 내가 빛나려고 하지 말자. 겸손할 줄 알자.

대학배구리그 MVP를 수상한 만큼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대한항공에는 주전 세터인 강민웅이 있긴 하지만 황승빈은 서브가 좋아 신인임에도 프로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라운드 6순위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이승원 한양대 3학년

포지션 : 세터
키/몸무게 : 187/75
생년월일 : 93.04.11
출신교 : 남성고-한양대
2014 전국대학배구리그 세트 순위 : 9위(세트당 8,756개)
프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 프로에 오니 다들 너무 잘하고 대학 때보다 수준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고 신인다운 마음가짐으로 프로경기에 임할 것이다.
좌우명 :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현재 소속팀에 최태웅과 권영민이 있어 당장 주전으로 투입되기는 어렵지만 얼리드래프트로 일찍 프로에 입단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라이프컵 국제대학배구대회’에서 노재욱과 함께 대표팀 세터로 출전하기도 했다.

1라운드 7순위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이민욱 경기대 2학년

포지션 : 세터
키/몸무게 : 184/76
생년월일 : 95.02.10
출신교 : 송림고-경기대
2014 전국대학배구리그 세트 순위 : 3위(세트당 12,146개)
프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 프로에 와보니 선배님들 모두 높은 수준의 배구를 하고 있는데 빨리 배우고 노력해서 높은 수준의 배구, 프로다운 배구를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좌우명 : No pain, no gain(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

이승원과 마찬가지로 소속팀에 오랫동안 삼성화재를 이끌어온 세터 유광우가 있어 즉시전력감으로 보기에 이르지만 기본기가 탄탄해 앞으로 삼성화재를 책임질 신세대로 각광 받는다.

2014 카페베네 U리그 후반기 결산

10월 10일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2014 카페베네 U리그'의 막이 내렸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을 온 몸으로 느끼며 183일 간의 대장정을 펼친 77개 팀. 이 중 32개 팀만이 다가오는 '2014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에서 겨울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챔피언십에 진출한 주인공들은 누구?

매 경기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2014 시즌, 하지만 영남대학교, 광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우석대학교의 위업은 남달랐다. 이 네 팀은 어느 누구에게도 승리를 내어주지 않으면서 '무패'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2014 하나은행 FA컵'에서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영남대는 리그에서도 14승 전승을 거두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광주대는 11승 3무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무패의 기쁨을 누렸으며 '죽음의 조' 4조에 속했던 고려대 또한 어려움 없이 10승 4무, 무패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강자들이 모였던 7조에서는 우석대가 9승 5무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 외의 나머지 6개 팀 (가톨릭 관동대, 송실대, 성균관대, 홍익대, 한남대, 동의대)이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이들 포함 각 권역 별 상위 3개 팀이 챔피언십 선발대로 나선다.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8권역	9권역	10권역
가톨릭 관동대	송실대	성균관대	고려대	홍익대	한남대	우석대	광주대	영남대	동의대
한라대	광운대	중앙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남부대	초당대	울산대	동아대
상지대	한양대	용인대	경희대	청주대	배재대	호남대	동신대	안동과학대	인제대

(챔피언십 진출에 성공한 30개 팀)

고지를 향한 마지막 길목, 진검승부를 펼쳐라.

챔피언십 선발대로 나서는 위 30개 팀 외 2개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른 후 후발대로 참가할 수 있다. 1권역부터 3권역까지의 상위 4위 팀 (송호대, 세종대, 경기대), 그리고 4권역부터 10권역까지의 상위 4위 팀 (아주대, 선문대, 호원대, 조선대, 세한대, 대구대, 부경대) 중 각 1위 팀이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다. 과연 남은 챔피언십 티켓 두 장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될까.

팀 승리의 일등공신, 이들의 발끝을 주목하라.

팀의 우승 못지않게 값진 상이 바로 '득점왕상'이다. 8권역 2위로 챔피언십에 진출한 초당대의 공격수 김태훈이 현재 14경기 19득점으로 1위에 올라있다. 지난 해 U리그 권역 전체 득점왕을 차지한 동아대학교 출신 이주용 (현, 전북현대모터스)의 기록 (15경기 17득점) 보다 앞선다. 한편 1위 김태훈에 이어 동아대 서형승이 11경기 15득점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골게터들의 전쟁은 다가오는 11월 6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챔피언십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각 권역 별 '강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올해의 우승 트로피는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지 대학축구가 만들어낼 뜨거운 겨울을 기대해보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학 선수 총결산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지난 9월 19일부터 2주간 인천 일대 50여 개의 경기장에서 개최된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아시안 게임)'가 10월 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금 79 · 은 71 · 동 84, 총합 234개로 종합 2위를 기록하며, 목표로 내걸었던 대회 5회 연속 종합 2위 달성에 성공했다.

역대 최대 규모가 참가한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38개 종목, 831명(남 454명, 여 377명)이 파견되었다. 그 중 대학 선수는 30개 종목에 103명이 출전하여 전체의 약 12%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선수들은 22개 종목(양궁,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구, 볼링, 복싱, 사 이클, 승마, 펜싱, 축구, 골프,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카바디, 근대5종, 사격, 스쿼시, 수영, 태권도)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출전 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로써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대학 선수들은 금 17개 · 은 16개 · 동 16개 총합 49개의 메달 을 획득했다.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태권도로 금 4개(김태훈, 이대훈, 김소희, 이아름) · 은 2개(윤정연, 이원진)를 쓸어왔다. 이어 체조 (금 1 · 은 3 · 동 1)와 유도(금 1 · 은 1 · 동 3)가 각각 5개, 그리고 복싱(금 1 · 은 1 · 동 2)이 4개로 뒤따르고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개최 되어 인천아시안게임의 피날레를 장식하다시피 한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으로 대학 선수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종목이다. 태권도는 남녀 국가대표 12명의 선수단 중 대학 선수가 절반 이상인 7명에 달하며, 그 중 6명이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금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종목은 앞서 언급한 태권도가 4개로 단연 1위에 올라있고, 이어 여자 사브르 단체전과 남자 에베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펜싱이 2위(2개)를 차지했다.

다관왕의 영광을 안은 대학 선수들도 줄을 잇는다. 먼저 볼링 이영승(한체대)은 여자 2인조와 여자 3인조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 했고, 골프 김남훈(성균관대)은 남자 개인전, 남자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뿐만 아니라 기계 체조 박민수(한양대)도 남 자 안마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사수했다. 리듬체조 부문에서도 손연재(연세대)가 개인전에서 금메달, 단체전 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근대 5종의 최민지(한체대) 또한 여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마지막 으로 수영에서는 남기웅(동아대)과 양준혁(서울대)이 함께 출전했던 남자 계영 4x100m 부문과 4x200m 부문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획 득했다.

가장 많은 관중을 기록했던 인기 구기 종목에서도 대학 선수들의 활약이 쏠쏠했다. 먼저 국가대표 발탁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아온 남자 야구 대표 팀의 홍성무(동의대)는 홍콩과의 B조 예선전에 선발 출전하여 4이닝 무실점 3탈삼진으로 호투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남 자 농구 대표 팀의 이종현(고려대) 또한 예선부터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맹활약했다. 이종현은 특히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는 12득점 4리바운드로 팀 내 최다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구기종목에서 보여준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다. 리듬체조 손연재(연세대)는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지난 런던 올림픽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물오른 연기를 선보이며 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특히 개인전에서 곤봉, 리본, 후프, 볼 4개 종목 중 3개 종목에서 18점대 점 수를 받으며 역대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피나는 노력 끝에 아시안게임 정상이란 결실을 이룬 54명의 대학선수 메달리스트와, 비록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으나 그에 버금가는 감동과 열정을 보여준 선수들까지, 이들 모두가 보여준 노고와 감동에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전한다.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 올림픽 에 출전하여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대학 선수들이 되기를 응원한다.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의 의미, 향후 개선점과 지향점

2014년은 대학운동부에 뜻 깊은 해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를 통해 운동부 재정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행한 첫해이기 때문이다. 2014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은 엘리트스포츠의 중심축인 대학운동부에 재정을 지원하여 대학운동부 육성을 장려하고,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 사업은 최근 대학구조조정으로 재정난에 처한 많은 대학들이 운동부 축소 움직임을 펴고 있는 시점에 시행되어 그 의미가 크다. 대학 운동부 현장 관련자들은 직접적 재정지원을 크게 반기고 있다.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고 자신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국의 65개 대학 210개 운동부가 신청한 것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간다.

이 사업은 약 32억 3천만원의 공익사업적립금을 투입했다. 애초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 종목 56개 중 국내 프로리그 활성화 종목을 제외하고 52개 종목 100여개 정도 지원계획을 세웠다. 특히 KUSF 회원대학은 물론이고 비 회원대학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는 대학스포츠발전을 위해 더디 가도 함께 가자는 의미였다. 훈련경비, 훈련용품, 대회출전비 항목에 한하여 최고 3천만원에서 최저 약800만원까지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었다. 심사는 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종목중요도, 운동부 구성과 실적, 재정여건, 종합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운동부는 시도체육회에 지원신청하고 시도체육회가 1차 심사하였고, KUSF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따랐다. 최종적으로 65개 대학 151개 운동부가 선정되었다. 각 시도별로 고루 분포되었고, 단일 대학이 과도하게 선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잘한 일은 KUSF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체육회의 협조를 얻어 대학운동부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많은 대학운동부가 이번 사업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USF가 고

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처음 들었다.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정부와 체육 단체의 관행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시도체육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최종선 정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심사과정에서 시도체육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1차 심사의 의미가 있고, 시도체육회의 역할이 존재할 것이다. 아니라면 1차 심사는 자격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애써 평가한 결과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시간낭비다. 둘째, 원칙은 재정이 어려운 대학운동부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정 결과는 이 원칙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평가기준에는 재정여건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축소되어 다른 항목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결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재정환경에서도 운동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재정이 직접 투입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일부의 경우라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향후 심사기준을 재고하면 좋겠다. 셋째, 시행 첫해라서 그러하겠지만 이 사업을 모르고 지나친 운동부도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하여 아쉬워하는 운동부가 없어야 하고, 꼭 지원받아야 할 운동부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2015년, 201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학운동부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지원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 대학운동부는 초중고 엘리트 스포츠와 프로스포츠, 실업스포츠의 가교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운동부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딴 메달 57개 중 29개를 따냈고, 22개 종목 249명의 국가대표 중 73%에 달하는 181명을 배출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도 절반 이상의 메달을 대학선수들이 따내 그 중요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대학운동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한파를 몸소 겪고 있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정원 감축, 반값등록금, 대학재정 압박으로 이어지는 대학구조조정의 회오리는 대학운동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대학스포츠는 위기의 산을 힘겹게라도 넘을 것이다.



글 허정훈(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승마, 가을을 달린다

기획의도
페이스메이커란
마라톤에서
기준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앞으로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승마를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좋아서요. 말이 좋아요.

다른 일도 해봤지만 말을 탈 때 가장 행복합니다.”

Enjoy Life, Enjoy Riding

[말을 탄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이는 결승선을 향해 돌진하는 경마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우아하게 한발 한발 내딛는 승마를 상상한다. 경마는 숙련된 기수가 할 수 있지만 승마는 반나절만 배운다면 체험할 수 있다.

승마를 직접 해보지 않은 경우, ‘이게 스포츠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 두박두박 걷는 말 위에 앉아 신선놀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마가 주는 운동효과는 의외로 뛰어난데, 승마를 10분하면 수영을 1시간 한 것과 같다고 한다. (승마 시간 당 3,000kcal 소모, 수영 시간 당 500kcal 소모) 말이 걷는 혹은 뛰는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여줘야 승마를 제대로 즐긴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체험해보면 말 위에서 중심을 잡는 일조차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칼로리 소모 뛰어난데다가 말에게 체중을 맡겨야하는 미안함(?)이 정신적 의지도 키워주니, 승마는 몸매관리에 민감한 대학생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생활체육이다.

승마의 매력이 어디 다이어트뿐이라. 쫓쫓. 허를 차면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못 들은 척 가만히 있다면, 배를 툭툭 차 줘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귀찮은 티를 내며 발걸음을 뗀다. 이 때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칭찬’이다. 말의 목을 토닥토닥 만져주며 ‘고마워’, ‘잘했어’ 등 표현을 해줘야 다음이 수월해진다. 귀찮음. 칭찬. 승마가 ‘소통의 스포츠’란 증거다. 때문에 자폐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아이 등에게 치료목적으로 승마를 추천하기도 한다.





승마 = 귀족스포츠?

승마를 '귀족스포츠'라 칭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승마는 중세 귀족들이 즐겼던 스포츠다. 영국에서는 매년 3월, '첼트넘 골드컵' (Cheltenham Gold Cup) 이라는 승마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윌리엄 부부 등 로열패밀리도 방문하며 '귀족스포츠'라는 이름의 역사를 더하고 있다.

두 번째, 승마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승마용 말의 가격은 수 천만원부터 3억 원이 훌쩍 넘기도 한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중동선수의 경우, 100억 원 대의 말을 타는 선수도 있다고 하니 승마는 부유해야 시작할 수 있는 스포츠가 맞다. 하지만 말을 한 필 구매하여 거리를 활보하거나 전문 승마인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면, 귀족이 아니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승마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레깅스에 부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10년 전에 입었던 옷은 촌스럽지만, 수십 년 전 할머니가 입었던 주름치마는 내일 당장 입고 싶을 만큼 예뻐 보인다. 때문에 "패션은 돌고 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 돌고 돌아도 너~~무 돌은 패션이 있으니, 바로 승마복이다. 딱 달라붙는 레깅스와 종아리를 꽉 조이는 가죽 부츠, 조금 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보게 될 패션이다. 하지만 패션이기 전에, 이 구성은 승마복과 일치하는데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승마바지가 험령한 경우에는 안장과 마찰이 생겨 부상의 염려가 있어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딱 붙은 바지가 제격이다. 또한,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 이 또한 승마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종아리와 발목에 딱 붙을 수 있는 딱딱한 가죽부츠를 신어 말의 복부를 꽉 조여 줘야 하기 때문이다.

INFOMATION

승마의 장점을 알고, 오해도 풀었으니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
라이딩클럽 (레저승마전문포털)
<http://www.ridingclub.co.kr/>
지역별로 승마장을 검색할 수 있고, 기승후기 등을 제공한다.

부천승마공원

사이트 : www.vivahorse.co.kr

연락처 : 032-675-9988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21-1번지

- 오전 09:00~오후 8:00
(동절기 오전 09:00~오후 5:00),
점심시간 12:00~14:00
- 매주 월요일 휴장



양주승마클럽

사이트 : www.yangjuriding.kr

연락처 : 031-861-8545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210번지

- 매주 월요일 휴장

레이크밸리승마장

사이트 : www.lakevalley.co.kr

연락처 : 031-543-9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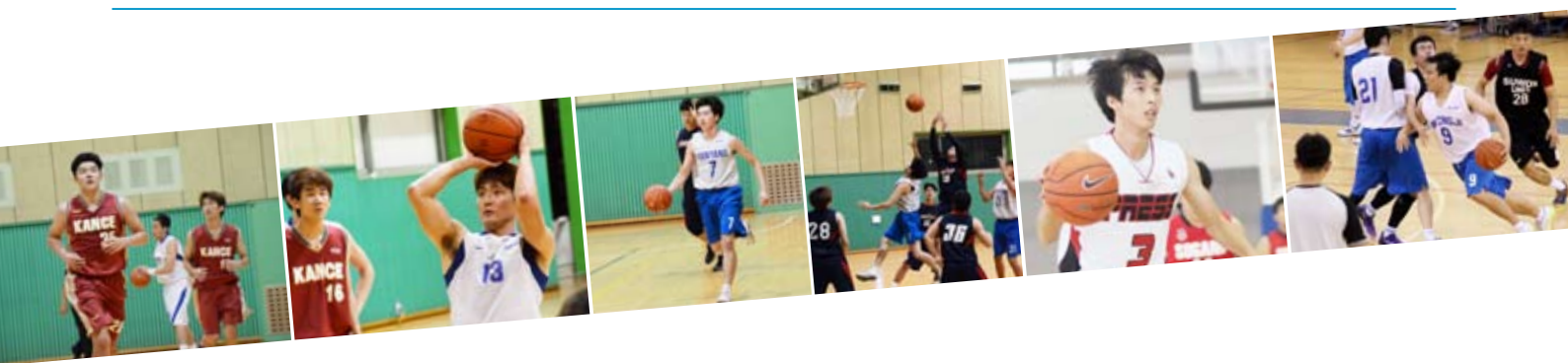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250번지

용인CC레저승마파크

사이트 : <http://cafe.naver.com/grayxq44k>

연락처 : 031-332-991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747-1



우리도 뛴다!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일반 학생의 대학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이하 동아리 U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동아리 U리그는 지난 9월 21일 1주차 경기와 같은 달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개월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는 수도권 26개 대학, 총 38개 팀이 참가해 11월 30일까지 리그전을 치른다. 각 지구별 4강에 든 16개팀은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16강전, 준결승전, 결승전에 참가해 최강팀을 가릴 예정이다. KUSF는 이번 동아리 U리그가 대학 내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와 대학스포츠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아리 U리그의 자세한 경기 소식은 대회 홈페이지(<http://uleague.kusf.tv>)와 대학스포츠 블로그(http://kusf_sport.blog.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 지구

동부지구에서는 한체대 칸스, 송실대 TIB, 서울대 새턴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각 팀이 3경기씩 치른 현재, 칸스가 3승, TIB와 새턴이 2승 1패씩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TIB의 1패는 칸스가, 새턴의 1패는 TIB가 선사했다는 것이다.

칸스는 최규철, 안상용, 이덕왕 등 여러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승승장구 중이다. 1주차 경기에서는 최규철이 14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3주차 경기에서는 이덕왕이 14득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TIB와 새턴에는 각각 박종호와 박진서라는 에이스가 굳건히 버티고 있다. 박종호는 25일 현재 17.3득점, 리바운드 10.3개, 박진서는 15득점, 리바운드 7.3개를 기록 중이다.

서부 지구

서부지구 4주차 경기에서는 두 강팀의 맞대결이 벌어졌다. 1,3주차 경기에서 연세대 볼케이노는 인하대 바이러스와 경기대 요농회를 각각 62-33, 62-44로 꺾었고, 성결대 프레스는 서강대 농구반과 연세대 계농패를 만나 54-32, 59-58로 이긴 바 있다. 3연승으로 단독 1위나, 2승 1패로 공동 2위나를 두고 펼쳐진 경기의 승자는 프레스였다. 평균 15.6득점, 리바운드 9.3개를 기록 중인 김태병과 1주차 경기에서 투핸드 덩크를 성공했던 장균성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력한 지구 라이벌이었던 볼케이노를 꺾은 프레스의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 지 주목된다.

한편, 볼케이노는 이 패배로 2승 1패를 기록하며 경기대 요농회, 서강대 농구반, 인천대 스타트와 공동 2위에 자리하게 됐다.

남부 지구

개막전을 치른 수원대 콘돌과 명지대 돌핀스를 제외한 남부지구 여섯 팀은 현재 두 경기씩만 뛰었다. 따라서 강팀과 약팀을 구분 짓기엔 아직 이르다. 다만 개막전 1점차 승리의 주인공 콘돌은 현재 3연승을 기록하며 단독 1위에 랭크됐다.

콘돌은 일대일과 돌파에서 강점을 보이는 최영우를 중심으로 김성훈, 정승기 등 주전들의 평균 기량이 높다. 콘돌의 뒤를 개막전 상대 돌핀스가 2승 1패로 바짝 따라가고 있다. 돌핀스의 이진영은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며 팀을 이끌어 가고 있다. 거기에 솟이 좋은 이규성이 힘을 보태고 있어 앞으로의 선전이 기대되는 팀이다. 두 팀을 제외한 가천대 아틀라스, 강남대 스냅, 경기대 슈테른, 단국대 피닉스, 성균관대 KINGO, 연세대 공오친은 모두 1승 1패씩 안고 있어 중간고사 휴식기 이후인 6주차 경기부터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부 지구

국민대 쿠바와 상명대 위너가 3연승으로 북부지구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쿠바는 에이스 임송국을 내세워 연승 행진 중이고, 위너에는 황선오와 유규상이 있다. 쿠바의 임송국은 뛰어난 스피드와 돌파 능력이 강점이다. 이와 더불어

쿠바는 각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활용해 북부지구 최고 수준의 런앤건 농구를 선보이고 있다. 위너의 황선오와 유규상은 매 경기마다 결정적인 득점을 올려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특히 위너는 3주차 스파바와의 경기에서 버저비터로 승리하는 등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이 돋보인다. 당분간 두 팀의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동 2위에는 각각 2승 1패를 기록 중인 고려대 서우회, 국민대 탭, 서울과기대 스파바, 성균관대 프렌즈 총 네 개 팀이 있어 앞으로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학농구 · 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가 바라본 대학스포츠



고민들을 통해 많은 지역 주민 분들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 분들을 경기장으로 모셔서 대학생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들이 상명대 농구를 즐기실 수 있게 돼 정말 좋았습니다.

Q 네 학교 모두 올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였다' 할 만큼 자랑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나요?

단 저희는 단국대와의 라이벌 매치를 이용해 기획한 이벤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구기헌 총장님께 편지를 쓰게 됐죠. 다행히 총장님께서 저희를 기특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단국대와의 경기가 있던 날을 '농구의 날'로 선정해주시고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양해해주셔서 그날 무려 16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중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죠.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상명대만의 이벤트였어요.

황 경희대학교는 체육관 시설이 협소하다보니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도 그 분들을 경기장에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

올해 대학농구 · 배구리그는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가 공식 출범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각각 KB국민은행, 한국대학스포츠총장 협의회(이하 KUSF)의 주관 아래 활동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팀을 홍보하고 응원해 행했던 경기장에 관중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활동 첫 해였지만 대학스포츠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뚫은 서포터즈들이 바라본 올해 대학스포츠는 어땠을까. 상명대 농구부 서포터즈 SMASH의 단진룡(이하 단), 경희대 농구부 서포터즈 DUNKHU의 황승현(이하 황) 그리고 인하대 배구부 서포터즈 BE룡의 김예나(이하 김), 경기대 배구부 서포터즈 기대요의 박단예(이하 박)로부터 직접 들어보았다.

Q 네 분 모두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 첫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스포츠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였다는 평가가 많은데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나요?

단 저희는 보다 많은 곳에 서포터즈의 활동과 상명대 농구부를 알릴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어요. 농구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

김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의 위치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배구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 둘씩 배구부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삼삼오오 체육관에 모여 배구를 보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뿌듯해요.



상명대 농구부 서포터즈 SMASH의 단진룡



인하대 배구부 서포터즈 BE룡의 김예나

해낸 방법이 이원화중계였죠. 기숙사에 TV를 설치하고 그 앞에서 학생들이 농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방식을 꾀아봤는데, 첫 시도여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신선했다는 평가도 듣고 학생들 반응도 좋아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기반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던 만큼, 내년에는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재밌는 경희대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경희대 농구부 서포터즈 DUNKHU의 황승현



경기대 배구부 서포터즈 기대요의 박단예

김 저희 팀은 온라인 콘텐츠가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서포터즈 중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하구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에게 흥미로운 정보,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해요. 하나를 올리더라도 항상 재밌는 사진이나 영상을 가미하는 게 인기의 비결인 것 같아요. 특히 인하대 선수들과 함께 제작한 각종 CF패러디 영상은 가장 반응이 뜨거웠죠.

박 인하대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온라인 콘텐츠에 주력했어요. 그 중에서 저희만이 가진 차별점이라면, 각종 테마를 정해서 기획한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성년의 날에 '여심 Day'를 기획해서 작은 선물과 함께 여성 팬들에게 배구와 함께하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는 거죠. 배구 팬 중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경기대를 알리는 것 뿐 아니라 배구 자체를 홍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Q 시즌 내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리그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대학스포츠 전반에 대해 느

꼈던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누군가는 서포터즈 활동을 이어갈 텐데 그들을 위해,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단&황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달리 해결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 시즌동안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경기 일정에 대한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대학스포츠는 무엇보다 대학생이 중심이에요. 직접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학생이고, 그들을 알리는 서포터즈들도 학생이고, 경기를 보러오는 분들의 대부분도 역시 학생이죠. 그런데 정작 학생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보통 경기 시간이 수업과 겹치는데 저희도 학생이기 때문에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서는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또 가끔 중계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경기 시간이 바뀔 때면 더 당황스럽죠. 그리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저희가 대학농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대학농구가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대학농구의 매력을 접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대학농구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김 대학배구 서포터즈는 농구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열악해요. 따로 스폰서도 없다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프로모션이 있어도 비용의 제약을 고려하다보면 불가능한 것들도 적지 않았구요. 그리고 저희는 KUSF의 주관 아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끔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KUSF와 대학배구연맹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 대학배구에도 이벤트성 대회가 많이 열렸으면 해요. 몇년 전부터 이어져오던 대학농구 올스타전을 이번에는 대학농구 서포터즈 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대학배구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 *

약 1시간 30분의 시간동안 네 팀은 쉼 없이 지난 활동의 뿌듯함과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모두 대학스포츠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가득했다. 자신들이 내년에도 서포터즈 활동을 이어나갈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바통을 이어받을 누군가가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자신들과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네 팀의 바람이 결실을 맺기를!



대한체육회 훈련지원부

김형석

영상분석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행정가를 꿈꾸는 많은 청춘들이 가장 높은 목표로 생각하는 직장이다.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체육회, 그 중에서도 국가대표의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면 더욱 꿈에 그릴 것이다. ‘멘토를 만나다’ 첫 번째 멘토는 대한체육회 최초 영상분석가이자 진천선수촌 훈련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석 주임이다.

‘진천선수촌의 기둥’ 대한체육회 훈련지원부

김형석 주임은 올해로 4년 차 대한체육회 훈련지원부 소속 영상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다. 훈련지원부는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운영단 아래에 있는 부서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은 물론 선수촌 입촌 계획, 숙소 배정, 급식 등 선수촌 내 모든 생활을 관리한다. 국가대표 중심 훈련지가 기존의 태릉에서 진천으로 이동함에 따라 진천선수촌 내 국가대표 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고, 이는 훈련지원부 신설로 이어졌다. 김형석 주임은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대부분의 선수들의 훈련을 촬영해 자료를 모으는 걸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가 모든 종목의 전문가는 아니라 촬영의 주안점에 대해서 각 종목 코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의한 내용을 토대로 영상 촬영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요. 촬영한 원본 자료는 편집본과 함께 보관하며 코치 및 선수에게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대한체육회 ‘최초’ 영상분석가가 되기까지

하지만 김 주임의 첫 번째 직장은 대한체육회가 아니었다.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에 다니며 스포츠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던 중 4학년 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 하나였던 스포츠영상분석가 전문가과정을 수료했어요. 6개월 동안 직접 영상을 찍고 분석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계기로 프로축구 아웃소싱 업체에서 구단 별로 영상을 분석해서 제공해 주는 일을 처음 하게 되었죠.” 이후 IT분야에서도 일을 하며 조금씩 스포츠 영상 분야에 흥미를 느껴갈 때 즈음, 그는 대한체육회 공채에 지원했다. 대한체육회 최초로 영상분석 공채가 났고 이미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고 있던 그는 당당하게 합격했다. 김 주임은 2011년 입사하여 태릉선수촌에서 두 달 동안 근무한 후, 진천선수촌으로 자리를 옮겨 4년 차가 되기까지 재밌게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임원단 경기 분야로 파견된 그는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를 도와준다는 자제만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은 20대 초중반에 경기력이 최고조에 오를 때가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메달 성과가 좋지 않아요. 선수촌 내 학점 인정 수업도 개설되어 있고 학생 선수들을 위한 지원과 훈련 여건이 나아진다면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 기대해요.”

김형석 주임은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스포츠 산업 분야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즐거움’을 강조했다. “저도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대학 시절에 공부만 하기보다 대회 자원봉사나 대외 활동 등을 통해 현장에 나가 즐겼으면 좋겠어요.” 훗날 은퇴 선수나 대학생에게 스포츠 영상 분석 강의를 하는 것이 목표라는 김형석 주임은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멘토였다.

***더 자세한 기사는 [대학스포츠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글 · 사진 양은희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성균관대 92학번 김상우 감독(42)이 2013년 11월 모교 감독으로 부임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제자이자 후배들과 호흡하면서 새삼스레 자신의 대학 시절도 떠올랐을 터. 그로부터 20년 전 대학 스포츠 ‘별 중의 별’이었던 ‘대학생 김상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기 오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거예요.”

김상우 감독이 성균관대를 졸업한 지 17년 만에 모교를 다시 찾았다. 성균관대 배구부 지휘봉을 잡은 것이다. 지난 1995년 삼성화재 창단멤버로 프로에 입단해 2007년까지 ‘원클럽맨’으로 화려한 선수 생활을 누렸던 김상우 감독. 이후 LG손해보험 그레이터스 코치 및 감독을 거쳐 해설위원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2013년 11월 성균관대로 돌아와 후배들 지도에 여념이 없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참 어려웠어요. 일단 거포들이 빠졌고, 선수층이 얇아서 애를 먹었죠.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로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외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많이 배웠던 1년이었어요. 더 겸손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만약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정도로 많은 공부를 했어요.”

또 다른 도전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 ‘배움의 1년’은 그에게 소중한 자산이 됐다.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성균관대를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오빠부대’ 끌고 다녔던 92학번 김상우

김상우 감독이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대학 배구는 그야말로 황금기였다. 실업팀에 건직 밀리지 않는 전력을 과시하며 배구 흥행을 이끌었다. 대학교 학생 선수들이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주전 자리를 꿰차기도 했다.

이 가운데 김상우 감독도 있었다. 아울러 당시 대학 무대에서 선전을 펼쳤던 성균관대 배구부에는 그의 1년 선배인

임도현과 후배 신진식(이상 現 삼성화재 코치) 등도 있었다. 뛰어난 배구 실력은 물론 원칠한 키와 외모로 ‘오빠부대’를 끌고 다닌 것이다.

“그 당시에는 스포츠가 가장 재밌는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덕분에 배구





와 농구 인기가 좋았죠. 대학교 때는 경기 끝나고 체육관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흔히 오빠부대라고 하죠. 여고생들이 몰려와서 쉽게 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요. 숙소 앞에 매일 찾아오는 팬들도 있었구요.”

뿐만 아니다. ‘오빠부대’의 선물 공세도 어마어마했다. 하루에 100통이 넘는 팬레터를 받는가 하면 시계, 속옷 등 선물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에 내려갈 때는 큰 캐리어를 준비했었어요. 선물 담으려고요(웃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루에 팬레터 100통 이상 받기도 했었어요. 물론 다 읽지는 못 했죠. 또 손목시계나 라이터, 학을 접어서 담아주기도 했고 스킨과 로션도 받았어요.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속옷이에요. 4~50개 정도 받아서 후배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 시절 그는 ‘배구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절실함으로 끝까지 배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빠부대’의 열렬한 응원엔 큰 활력소가 됐다.

잊을 수 없었던 첫 MT와 미팅

그 시절 성균관대 배구부는 체육관 사정상 하루에 두 시간 훈련하는 것이 전부였다. 대신 강의를 들으며 학과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김상우 감독은 신입생 때 가장 대학생다운 생활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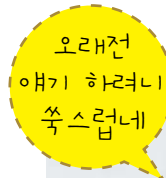
“1학년 때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후에는 대표팀에 소집돼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서 빠졌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1학년 때가 재밌었어요. 과 동기들과 친해지면서 농구팀을 만들어서 과대항 농구대회에 나갈 만큼 농구를 즐겼었죠.”

그리고 수학여행과 소풍의 추억이 없는 그는 대학교 첫 MT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고등학생 때까지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서글펐죠. 그래서 대학교 MT를 꼭 가려고 했어요. 첫 MT 장소는 대성리였는데 청량리에서 기차타고 가면서 통기타 반주에 노래도 불렀고요. 도착해서는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배구 시합도 했어요. 물론 배구 선수가 아닌 척해서 우리가 이겼었죠.”



그 흔한 캠퍼스 커플(CC)은 경험하지 못 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의 꽃’ 미팅은 했었다. 방해할 것을 그만 같았던 선배가 단숨에 구세주가 됐던 일화가 있다.



“여대 학생들과 미팅을 했었어요. 5시 약속이었는데 선배가 7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혜화동에서 도봉동(당시 숙소)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거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만나서 체리주스만 먹고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 보자마자 일찍 들어오라고 한 형한테 고마웠죠(웃음).”

후배들에게 외친다!

최근 면접을 보러 온 1996년생 신입생들을 보고선 생년월일이 아닌 학번이 아니냐고 되묻는다는 김상우 감독. 그래도 후배들에게 외친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꼭 해내야겠다는 절실함을 가졌으면 한다.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다면 나중에 아쉬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도 외국 나가서 영어 한 마디도 못하는 나를 보면 답답하고, 평생소원이었던 피아노를 치는 것도 지금은 할 수 없다.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공부할 수 있을 때 해두는 것이 나중에 위해서라도 좋다.”

제3기 임원진 조찬간담회 개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9월 19일 오전 7시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KUSF 제3기 임원진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3기 임원진 상견례를 겸해 2014년도 KUSF 주요 성과 및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KUSF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을 비롯하여 김기언 부회장(경기대 총장), 유병진 부회장(명지대 총장), 구기현 부회장(상명대 총장), 이용구 부회장(중앙대 총장), 송희영 이사(건국대 총장), 안재환 감사(아주대 총장) 등 간담회에 참석한 7명의 임원진은 KUSF와 대학스포츠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KUSF가 대학스포츠 중심 기관이 돼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수행해야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이날 주요 현안 보고를 맡은 강신욱 집행위원장은 “KUSF가 대학스포츠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대학 총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임원진의 지도편달을 당부하는 한편,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대학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 수료식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10월 16일 오후, KUSF 사무처에서 대학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이하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 수료식을 진행했다. 수료식에는 각 대학 서포터즈 팀장이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대학농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에 이어 출범한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는 7개 대학(경기대, 경희대, 명지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부대, 한양대) 92명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4월부터 6개월간 다방면의 홍보 활동으로 대학배구리그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경기 평균 관중 수가 작년 대비 170% 증가했고, 향후 리그 스폰서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서포터즈들은 “처음엔 대다수의 학생들이 배구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우리의 활동을 보고 배구부에 관심을 갖고 경기를 보러 찾아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취재 후일담

서다영

인하대학교 황승빈 선수와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최고참인 4학년에서 프로무대 새내기로 거듭난 그는 여전히 앳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욱 듬직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춘계대회 우승과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화려한 성적으로 4학년을 마무리 지은 그는 인하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한 해가 가슴 속 깊이 박힐 것이라 이야기하며 벅찬 감동의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멋진 황승빈 선수, 대학리그 MVP를 넘어 프로무대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양은희

멘토를 만나다 취재를 위해 혼자 진천선수촌을 방문했는데, 주임님 ID카드로 모든 곳을 둘러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수영장, 선수 대기실, 트레이닝실 등 선수촌 곳곳을 구경하고 직원 식당에서 점심식사도 하고... 그런데 취재를 마치고 터미널로 가던 중 방문증 반납을 하지 않은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마터면 방문증을 서울로 가져가고 제 주민등록증을 선수촌에 두고 올 뻔 했어요.^^;

이태민

서울에서 부산을 동네 마실 가듯 훌쩍 가게 될 줄이야.. 카바디 취재는 처음부터 신선하게 시작 되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진행된 카바디 취재는 참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선수들은 개인 인터뷰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막상 시작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 내었고, 그때 보인 선수들의 순간순간 반짝이던 눈빛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 눈빛은 카바디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 결정적인 것이었다. 흥해라, 대한민국 카바디!!

최귀병

우선 웹진 창간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큰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부분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하네요! 서포터즈 분들에게 연락하면서 이 분들과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말씀해주신 귀중한 내용들을 제가 글로 잘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 서포터즈분들에게 죄송스럽네요. 아무튼 이번 창간호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웹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